

1.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멸실로 인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증권작성의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한다.
- ② 어선공제는 해상보험과 유사하므로 어선공제약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판례는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험계약자의 종류에서 구하고 있다.
- ④ 항공기기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권 행사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된다.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의 체결은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성을 띤다.
- ③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필요하다.
- ④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보험료의 납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물건과 집합물건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②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 ③ 지식재산권은 손해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대상을 의미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는 구별된다.

4. 소급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소급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 ② 소급보험의 경우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소급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장기이다.
- ④ 소급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의 일정한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한다.

5.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상해보험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규정
- 나. 업무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 규정
- 다. 상해보험에서 기왕장해에 대한 감액규정
-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차량이 육상 운송과정에서 아닌 선박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의 사고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 마. 주택보증보험계약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규정
- 바.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에 관한 규정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바
- ③ 나, 마, 바
- ④ 다, 마, 바

6.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부분은 약관 전체를 의미한다.

7.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②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 ③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 인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통지를 한 경우 그 효력이 있다.

8. 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기간 중 특별하게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보험계약자만이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보험계약상 보험료의 지급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지예고부최고는 보험료의 부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 ② 보험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안내장을 보험계약자에게 보내는 것은 상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③ 해지예고부최고를 일반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그 우편물이 보험계약자 측의 주소지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④ 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미지급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를 요건으로 한다.

1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타인을 위한 인보험의 경우 그 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11. 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638조의2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승낙기간의 경과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지 않는다.
- ② 약관상 청약철회규정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보험자는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한다.
- ③ 신체검사가 필요한 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통지기간이 기산된다.
- ④ 승낙기간의 경과로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상시 거래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12. 보험사고 발생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보험계약 체결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
- ②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의 점거,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
- ③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 공사를 시행한 경우
- ④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 보험가입자인 렌터카회사가 피보험차량을 지입차주로 하여금 렌터카회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렌터카 영업을 하도록 허용한 경우

13. A와 B에 들어갈 것을 모은 것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청구권은 ( A )년간, 보험금청구권은 ( B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① A: 1, B: 3
- ② A: 2, B: 3
- ③ A: 3, B: 3
- ④ A: 3, B: 2

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약관조항은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자는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 ② 장해분류표에서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금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보험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5년이다.
- ④ 모텔 투숙객의 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객실의 지배는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에게 있으므로 발생원인이 불명한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에게 귀속 되고, 숙박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투숙객의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소형트럭 차량 운행 중 비가 내리자 시동을 켜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아야 한다.
- ②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서,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에서, 화재가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하여 임차하지 않은 목적물까지 타버린 경우에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④ 보험자는 이른바 임의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해당 진료비를 받은 병원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다.

16.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다.
- ② 자동차상해보험 중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 사망하여 사망보험금항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그 부분이 생명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유효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구제를 강조하는 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서는 무효이다.
- ④ 자동차상해보험특약은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하여 피보험자가 보상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7. 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복보험의 합계금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 ② 중복보험자 가운데 하나가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금액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당사자간에 보험자대위에 동의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④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청구권과 중복보험분담금청구권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분담금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18. 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보험료를 받은 보험자가, 보험 사고 발생 후에 비로소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 ② 창고보험처럼 보험기간 중에 물건의 수시교체가 이루어지는 총괄보험의 경우는 사고발생시에도 피보험이익의 객체를 확정할 수 없지만 화재나 도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법한 보험제도이다.
-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성립의 절대적 요건이므로 피보험 이익이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의가 있어도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조건부 이익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확정할 수 있어야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장래의 이익과 다르다.

19.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② 분손의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손해액에 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③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의 목적의 물가 상승으로 보험 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자연적 일부보험의 경우는 일부보험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 ④ 비율보험에는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된다.

2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손해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상법에 보험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조항은 없다.
- ② 손해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와 경감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상법은 규정하는 바 없다.
- ③ 이득금지 원칙의 취지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손익상계가 이루어진 후의 금액이다.
- ④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증가시킨 경우에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무효이다.

21. 보험가액불변동주의와 무관한 것은?

- ① 운송보험
- ② 신가보험
- ③ 선박보험
- ④ 적하보험

22.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보증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 ② 보증보험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약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보증보험은 그 실질이 민법의 보증이므로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모두 준용한다.
- ④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면책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한다.

23.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현실전손이 발생하여야 하며 손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한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권을 취득한다.
- ②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부권은 형성권이다.
- ③ 잔존물대위와 달리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 인정되며 두 가지 모두 인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 ④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4.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항로를 이탈한 경우라도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한 보험자는 따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이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더라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25. 다음 빈칸에 들어갈 것을 모은 것으로 옳은 것은?

선박의 존부가 ( )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 )으로 ( )한다.

- ① 2월간-분손-추정
- ② 2월간-전손-추정
- ③ 3월간-분손-간주
- ④ 3월간-전손-간주

26. 방어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그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재판 또는 담보제공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방어비용에 관한 상법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약관에서 어떤 경우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27. 책임보험계약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직접청구권을 부인하거나 그 행사를 어렵게 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피해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므로 직접청구권은 부종성이 있으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책임관계상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③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 자체는 유효하고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을 들어 항변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총 피해액의 합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수의 직접청구권자들 사이에는 권리의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피해자 각자가 자기 권리의 전부를 주장할 수 있고 보험자는 누구에게라도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다.

28. 동일인이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생명보험계약을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이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④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9. 약관대출과 계약자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관대출금은 보험자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다.
- ② 약관대출계약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다.
- ③ 계약자배당금은 보험료산정에 있어 예정기초율과 실제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정산, 환원하는 것으로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익배당과 구별된다.
- ④ 사차익, 이차익, 비차익 등 이원(利源)별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인 계약자배당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한다.

30. 甲은 남편 乙을 피보험자로, 아들 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자와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나 가정은 전제하지 않고, 상법 제733조만 적용함)

- ① 甲이 丙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丙의 보험수익자로서의 권리가 확정된다.
- ② 丙이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丙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③ 丙이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丙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④ 丙이 보험존속 중에 사망하고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乙이 사망한 경우에는 丙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31.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 남편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한 후 사망하였다.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② 甲이 보험수익자 중 1인의 고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면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③ 보험수익자로 변경·지정된 수인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은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④ 甲이 사망할 시에 법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각 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32. 인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확정된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다.
- ②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유효하다.
- ③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배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서 사망한 경우, 이 사고는 우발적인 우연한 사고다.
- ④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하여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3. 甲이 남편 乙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약관상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조항(상법 제731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시 그 乙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 규정을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② 서면동의조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甲이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해태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乙이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이 계약을 추인한다면 그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甲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4.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망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
- ②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 ③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 ④ 생명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5.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 ② 단체보험계약은 단체 구성원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어야 한다.
- ③ 단체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무효이다.
- ④ 단체보험계약자인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퇴직 후 계속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가 종료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6. 인보험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잔존물대위나 청구권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타 차량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결과적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효력이 없다.
- ④ 상해보험의 경우 대위권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도 없다.

37.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임의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일반보험에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미경과보험료만 반환하면 되지만 장기인 생명보험에서는 저축적 요소가 포함되어 보험료적립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③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보험료적립금 반환사유 중에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된 때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8.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있다.
- ②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보험료의 부지급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증권소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 ③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거증권이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설권증권이다.
- ④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9. 보험계약과 관련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사고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④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0.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59조는 보증보험에도 적용된다.
- ②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보험에서 고의만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이나 피용인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대표자책임 이론은 판례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④ 손해보험에서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면책사유가 그 중 일부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에 이러한 면책사유는 당해 피보험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